

속빈 강정인가?

일반인에게 4색 인쇄기 한 대 값이 10억원을 훌쩍 넘는다고 이야기하면 깜짝 놀라곤 한다. 웬만한 규모의 인쇄사는 엄청난 시설투자를 하고 있으며 잘 짜여진 현대식 인쇄사를 방문해 보면 인쇄업에 대해 지니고 있던 고정관념이 확 바뀔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런데 또 한가지 놀랄 일은 인쇄사의 매출액이나 이익금이 생각보다 적다는 사실이다.

비교적 큰 규모의 인쇄사나 상장사의 결산서를 보면 겉으로 보기보다는 매우 힘든 생활을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물론 매출액 기준이 거래처에서 용지를 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임위주로 산출되고 용지가 포함되면 공임의 배 가까이 늘어나는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실속이 없는 사례가 많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인쇄업은 일감에 따라 시설을 확장하면서 팽창경영을 한다고 해서 마진이 이를 뒷받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인쇄인이 의외로 많다.

이와함께 수주에서 납품까지 괴롭고 아슬아슬한 과정이 마치 장애틀 경기 같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정말 힘든 사업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노사관계는 그런대로 서로 이해와 협조를 통해 상호발전한다는 공감대가 번지고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겠다. 사측에서는 될 수 있으면 경영의 투명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노측에서도 무리한 요구보다는 회사살림을 함께 걱정하며 성장을 향해 같은 배를 탔다는 인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므로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인력난 때문에 생산에 차질을 빚는가 하면 회사 관리체제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노력의 대가이긴 하지만 4색기장의 연봉수준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무질서한 기술자 빼가기가 인력난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경영인은 인사관리에 흥미를 잃고 아예 기계별로 기장에게 운영을 맡기는 사례까지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진정한 의미의 소사장제도 아니고 경영합리화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와함께 인쇄현장에서의 큰 문제점으로 '할 말을 안하거나 못한다'는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력난에 짓눌리다보니 품질관리 공장에서 잘못된 일을 지적하고 야단치는 사례가 크게 줄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품질향상 교육을 철저히 시킨다고 인쇄사를 옮기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답답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품질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모른척하고 지낸다면 회사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진정한 노사화합 기틀도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문제점을 알고서도 쉬쉬하고 넘기려다가 속 빈 강정 신세가 되는 인쇄사가 늘어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다.

〈오세익 · 편집주간〉



인력난에 짓눌리다보니 품질관리 공장에서 잘못된 일을 지적하고 야단치는 사례가 크게 줄었다고 한다. 심지어 품질향상 교육을 철저히 시킨다고 인쇄사를 옮기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답답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